



工業所有權制度 대폭 改正 商標分類 國際化 등 試案마련

特許廳은 최근의 知的所有權 강화추세에 맞춰 工業所有權제도를 현대화·국제화하기 위해 特許法·商標法 등 工業所有權法의 대폭적인 改正을 추진키로 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特許法중 國內優先權制度의 도입, 商標法중 商標分類方式의 국제화등을 골자로 한 工業所有權法 改正試案을 1차로 8월중순 이전까지 마련키로 하고 현재 工業所有權法 改正作業班을 구성, 改正案을 마련중이다.

特許廳은 이어 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2次試案을 마련하고 10월중 공청회를 거쳐 11월까지는 特許廳의 工業所有權法 改正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확정된 工業所有權法 改正案은 내년중 임시국회에 상정, 오는 90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改正될 工業所有權法은 최근의 知的所有權 강화추세에 따라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선진국과 같이 知的所有權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特別法중 特許를

出願한후 1년내 改良特許를 出願한 때는 최초의 出願일을 인정해주는 國內優先權制度의 도입, 不特許사유 的 裁減, 遺傳工學분야의 審査基準 개선, 특허협력조약(PCT) 제2장(국제예비심사절차)의 가입 유보 및 철회등이 검토되고 있다.

工所權審判 公正·신뢰성 提高 紛爭對處위해 優先審査등 伸縮적용

特許廳은 特許權紛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審判의 公正성과 信賴性을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審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民·刑事事件, 통상마찰사건등과 관련된 特許紛爭에 대해서는 優先審査制를 신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公正성을 확보하기 위해 口頭審理를 확대하고 분야별 抗告審判官·審判官·審査官協議會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특히 國際特許紛爭에 대비하여 審判部 구성강화, 事件審理 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청취, 審判業務에 관한 해외홍보강화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과의 工業所

有權 紛爭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업계를 대상으로 美國의 무역규제정책 및 유럽공동체(EC)의 무역정책 등에 관한 설명회도 갖기로 했다.

第25回 辨理士시험 第1次시험 合格者 발표

特許廳은 16日 第25回 辨理士시험 第1次시험 合格者 2백 56명의 명단을 發表했다.

第2次 시험은 9月 12日과 13日 國際特許研修院에서 치뤄진다.

이번 第2次 시험에는 지난해 第2次 시험 不合格者 21명을 합하여 모두 2백 77명이 응시한다. <☞>